

불교정화운동의 인식과 현재적 의미

이경순*

• 목 차 •

- I. 머리말
- II. 불교정화운동의 배경과 동인
- III. 불교정화운동의 전개과정
- IV. 불교정화운동의 현재적 의미
- V. 맺음말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 『大覺思想』 제33집 (2020년 6월), pp.73-99.

한글요약

불교정화운동은 현대 한국불교 교단 정체성을 확립시킨 역사적 사건이었다. 불교정화운동은 1950년대 중반 본격화되었지만, 실상은 한국불교의 근대적 변화와 식민지 불교의 모순, 한국불교 전통과 승단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이 해방 후 잠복기를 거쳐 일시에 폭발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1954년 5월, 이승만 대통령이 대처승은 사찰에서 물리나라는 담화를 한 후 교단의 외곽에서 생존해온 비구승들은 중앙교단을 장악하기 위한 맹렬한 운동을 시작했다. 이후 8여 년간 비구승과 대처승간의 교단 주도권 획득과 전국 사찰의 점유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1962년 통합종단이 출범하면서 정화운동이 마무리되고 결과적으로 비구승이 한국불교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하지만 불교정화운동이 종단의 주도권을 뒤바꾸는 혁명적 전개양상을 보이면서 많은 후유증과 과제를 남겼다.

불교정화운동은 지금으로부터 66년 전의 일이지만 현재까지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불교정화의 후유증으로서 종단의 정치의존 경향과 극단적 교단 내 분규양태는 불교자주화와 교단자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부상하게 만들었다. 또한 근대불교 역사인식의 단절도 성찰해야 할 문제이다. 한편, 불교정화는 종단이 위기와 혼란에 빠질 때마다 끊임없이 소환되는 종단 개혁의 구호로 등장해 왔다. 불교정화 이념은 조계종단이 실현시켜야 되는 과제이자 끊임없이 재생되는 불교혁신의 뿌리로서 역할을 해왔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주제어

불교정화운동, 불교개혁, 통합종단, 비구승, 대처승, 불교분규, 조계종단

I. 머리말

1954년에서 1962년까지 이어진 불교정화운동은 현대 한국불교 교단의 성격과 구조를 확립시킨 역사적 사건이었다. 불교정화운동은 시각에 따라 ‘불교정화’ 혹은 ‘불교분규’, ‘법난’ 등으로도 명명되고 있다. 이 사건의 역사적 해석을 둘러싸고 조계종과 태고종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¹⁾ 이것은 불교정화가 각 종단이 지닌 정체성과 정통성의 뿌리에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준다.

현상적으로 불교정화운동은 국가권력의 종교개입으로 촉발되었다. 1954년 5월 이후 1955년 12월에 이르기까지 이승만 대통령은 종래의 대처승은 친일자로 볼 수 있으니 사찰에서 물러나고 비구승들이 사찰의 주인이 될 것을 지시하는 담화를 7차례에 걸쳐 발표했다. 종단의 외곽에서 수행환경을 위협받던 비구승들의 불만은 이 담화 이후 집단적 쫓김의 양상으로 표출되었다. 첫 담화 직후 비구승들은 본격적인 ‘정화운동’에 착수하였고, 8여 년간 비구승과 대처승간의 교단장악과 전국 사찰의 점유를 둘러싼 충돌과 법리 분쟁이 이어졌다. 한국불교의 정통성과 주도권을 비구승이 장악하는가, 아니면 일제 강점기 이래 주류를 형성해온 대처승이 권력을 유지하는가의 문제였다. 1962년에 이르러서야 오랜 갈등의 봉합으로 통합종단이 출범하면서 정화운동은 마무리되고 결과적으로 비구승이 한국불교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불교정화 이후 조계종단은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교육·포교·역경이라는 종단 3대 사업을 수행하여 일정정도 발전을 이루었으며, 한국 불교의 전통을 대표하는 종단으로서 당당히 어깨를 펼 수 있게 되었다.

불교정화운동이 시작된 지 반세기도 넘게 시간을 흘렀다. 4년 후인

1) 조계종에서 2001년 발간한 『조계종사-근현대편』과 태고종이 2006년 발간한 『태고종사』는 조계종과 태고종의 불교정화(법난)에 대한 시각차와 역사관의 대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2024년이면 불교정화운동이 일어난 지 70년이 된다. 불교정화운동에 대해서는 2000년대 이후 연구가 본격화되어 그 전개과정과 의미를 탐구한 논의가 수차례 나왔다.²⁾ 불교정화운동은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묻고 교단 체제를 재편하기 위한 시도이자, 8년이 넘게 교단을 지배한 사건으로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국불교에서 불교정화운동의 의의는 아직 유효하며, 그 의미는 2020년 불교계의 현실 속에서 되물어야 할 가치가 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불교정화운동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곧 다가올 불교정화운동 70주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학계와 종단 구성원 모두에게 불교정화운동은 큰 화두가 아닐 수 없다. 이 글에서는 불교정화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불교정화운동의 배경과 동인, 전개과정을 간략

2) 불교정화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집은 아래와 같다.

민도광, 『한국불교 승단정화사』, 승단정화사 편찬위원회, 1996; 김광식·이철교, 『불교정화본쟁 자료』, 근현대 불교자료집 68, 민족사, 1996; 선우도량 근현대불교사 연구회, 『22인의 증언을 통해 본 근현대 불교사』, 선우도량, 2002; 태고종종단사간행위원회, 『태고종사』, 2006.

이 밖에도 불교정화와 관련된 주요인물이나 문증을 중심으로 정화운동을 정리한 다수의 자료집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광식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김광식, 「불교정화운동 연구, 회고와 전망」, 『대각사상』 제21집, 2014, pp.274-276.)

한편, 2000년 이후 불교정화의 전반적 과정과 의미를 다룬 연구는 아래와 같다.

강인철, 「해방 후 불교와 국가 : 1945-1960, 비구·대처의 갈등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57호, 2000; 김광식, 「불교 '정화'의 성찰과 재인식」, 『근현대불교의 재조명』, 민족사, 2000; _____, 「정화운동의 전개과정과 성격」, 『새불교운동의 전개』, 도피안사, 2002; _____, 「한국 현대불교와 정화운동」, 『대각사상』 제7집, 2004; _____, 「불교정화운동 연구, 회고와 전망」, 『대각사상』 제21집, 2014; 김순식, 「대한불교조계종과 한국불교태고종의 성립과정」, 『(순천향대)인문과학논총』 제22집, 2008; 박희승, 「불교정화운동 연구-불교정화운동을 보는 한 시각」, 『불교평론』 3호, 2000; 이재현, 「미군정의 종교정책과 불교계의 분열」, 『불교정화운동의 재조명』, 조계종출판사, 2008; _____, 「이승만 정권의 종교정책과 불교정화」, 『불교와 국가권력: 갈등과 상생』, 조계종출판사, 2010; 박승길, 「한국 현대사와 정화운동-정화운동의 사회적 영향과 조계종단의 정체성」, 『교단정화운동과 조계종의 오늘』, 선우도량, 2001.

2014년까지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고 연구경향을 분석한 논고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김광식, 「불교정화운동 연구, 회고와 전망」, 『대각사상』 제21집, 2014

히 정리하고, 현재적 시점에서 불교정화운동이 한국불교계에 갖는 의미를 몇 가지 제시하도록 하겠다.

II. 불교정화운동의 배경과 동인

불교정화운동은 1954년 5월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에서부터 본격화되었다.³⁾ 이 때문에 불교정화운동의 발생 배경을 이승만 정권의 종교정책으로 파악하기도 했다. 즉 이승만 정권이 친일파 유지, 개헌 논란 등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여론전환용으로 불교를 활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⁴⁾ 하지만 불교정화운동은 비구승 집단이 주체가 된 운동이었고 승단구조의 문제를 본질로 본다면, 그 배경은 훨씬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불교정화운동의 배경을 개항 이후 불교계의 근대적 개혁 회귀, 일본 불교의 침투, 일제 식민지 불교정책과 조선 불교계의 변화 등 근대 한국 불교의 흐름 속에 파악하는 것이 불교정화운동을 이해하는 역사적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즉 근대 불교의 흐름 속에 정화불사의 배경은 바로 근대 불교 교단에 존재했던 승려 대처(帶妻)의 현상부터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항기 한반도에 들어온 일본 불교는 메이지 시대에 들어서 승려의 대처육식이 허용되고 급속한 세속화가 진행된 상태였다. 일본 불교는 한반도에 포교

3) 이승만 대통령의 불교정화에 대한 지시에 대해 학자들마다 ‘유시(諭示)’ 또는 ‘담화’라고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유시’라는 말 속에는 권위주의적 통치자의 일방적 지시의 의미가 깊다. 당시에도 ‘유시’라는 표현을 많이 썼고 이승만 대통령의 태도에서 그러한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객관화한 표현으로서 ‘담화’라는 용어를 쓰기로 하겠다.

4) 이승만 정권의 불교담화(유시)와 불교정화운동을 분석한 연구로는 아래와 같다. 강인철, 「해방 후 불교와 국가:1946-1960 비구·대처 갈등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57호, 2000.; 이재현,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와 불교정화 운동의 전개」, 『대각사상』 제22집, 2014.; 김진흠, 「1950년대 이승만 대통령의 ‘불교 정화’ 유시와 불교계의 정치 개입」, 『사림』 제53호, 수선사학회, 2015.

사를 파견하고 포교소를 곳곳에 설치하면서 영향을 미쳤다. 일본 불교의 체계적 승단조직과 근대적 포교 방법은 조선 승려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20세기 초 사회진화론이 유행하고 종교간 경쟁의식이 팽배해지면서 조선불교가 타종교와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방략으로서 근대적 불교개혁에 관심을 가진 인물들이 나타났다.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만해 한용운(萬海 韓龍雲)이다. 불교의 개혁과 근대화를 고민했던 만해는 1910년 한일합방을 전후한 시기에 두 차례에 걸쳐 중추원과 통감부에 승려의 결혼을 허용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만해는 산속에 틀어박혀 세상의 변화에 무관했던 불교가 대중사회에 적응하고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승려의 결혼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만해는 승려의 결혼이 불교가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조선불교유신론(朝鮮佛敎惟新論)』에서도 주장했다.

1910년대 이후 승려들의 일본유학이 본격화되면서 대처의 풍조는 널리 확산되어 갔던 것으로 보인다. 식민지 조선 불교계에 대처는 확산되고 1920년대 후반 급기야 30본산 주지가 되려면 청정비구여야 한다는 사법(寺法)을 개정하여 대처승도 본산주지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대처승은 중앙교단과 지방 본산체제에서도 세력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일본 유학생을 비롯한 근대적 교육을 받은 불교청년들이 대처를 함으로써 대처승은 불교청년운동 세력에서도 주축을 이루었고 불교학계, 교육계에도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그런데 1930년대 초, 불교청년운동의 대표적 인물인 이용조(李龍祚)는 당시 조선불교계의 과쟁독, 주지독, 대처독이라는 삼독(三毒)을 지적했다. 그 중에 대처독에 대해 ‘조선에 불교가 들어온 후 처음 보는 과계생활’이라고 하면서 대처생활은 필연적으로 자본에 대한 필요가 생기게 하고 사유재산이 없으면 유지될 수 없는 것임을 간파했다.⁵⁾ 승려의 대처는 불교

5) 이용조, 「危機에 直面에 朝鮮佛敎의 原因 考察(續)」, 『佛敎』 101, 102호, 1932.12.

의 세속화와 명리추구로 인해 결국 승단조직과 사원경제의 혼란과 파탄을 가져올 것임을 예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승려 대처의 확산은 승단 구조와 승려의 사회적 양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었다. 일본불교의 강한 영향력과 불교대중화와 근대화의 명분 속에 승려 대처의 풍조는 결과적으로 불교의 세속화, 불교 전통을 훼손하는 방향을 띠 수밖에 없었다.

조선불교계의 대처승 확산에 맞서 비구승의 지계(持戒)정신과 수좌 전통을 지키려는 움직임도 끊임없이 일어났다. 대표적인 것이 1921년 선학원 창립과 선학원을 중심으로 한 수좌들의 활동이다. 이후 1931년 선학원에서 열린 전국수좌대회에서는 수좌들의 근거지로서 중앙선원 설치를 의결했다. 이후 선학원을 재단법인 선리참구원으로 전환시키고 조선불교 선종 종헌을 선포하기도 하였다. 대처승 위주의 종단운영에 대응하여 수좌중심의 독립적 조직체 구성을 꾀한 것이다. 1941년에는 선학원에서 유교법회를 개최하여 승풍 진작과 계율 수호에 앞장섰다.

한편, 비구승의 대처에 대한 경계를 보여준 활동으로 1926년 백용성의 건백서도 주목할 수 있다.⁶⁾ 백용성은 127명의 승려들과 함께 1926년 두 차례에 걸쳐 대처 허용을 반대하는 건백서를 제출했다. 이것은 본말사 운영의 기준이 된 ‘본말사법(本末寺法)’ 중 주지를 ‘비구계 수지자’로 한정하였던 것을 대처승도 가능하도록 개정하려 하자 이를 막으려는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1929년까지 대부분의 본사가 대처승을 주지로 허용하게 되었다.

한편, 해방 직후 교단 집행부가 물러나고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자 교단 내에서는 식민지 불교 극복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해방은 교계에 식민지 잔재를 청산할 전기가 되었으나, 1945년 10월 전국승려대회를 통해 종권을 인수한 총무원 집행부는 대부분 대처승들이었기에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들은 교단 소임을 맡음과 동시에 사

6) 김광식, 「1926년 불교계의 대처식육론과 백용성의 건백서」, 『한국근대불교의 현실 인식』, 민족사, 1998.

회활동과 정당정치에 개입하면서 교단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중 하나가 교도제(敎徒制)였다. 교도제는 원칙적으로 비구승과 대처승을 구분하고 대처승을 교도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교단을 장악하고 있던 대처승들은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도제를 순순히 수용할 수 없었다.⁷⁾ 교도제와 토지개혁에 대한 갈등으로 총무원과 대립한 혁신세력은 1946년 불교혁신총연맹을 조직하고, 1947년에는 전국불교도대회를 열어, 종단은 사실상 분규 상황을 맞았다. 더욱이 좌우대립이 극심한 시기에 총무원과 혁신세력은 이념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되면서 해방 후 교도제의 실현은 사실상 무산되었다.⁸⁾

그러나 각 지방의 수좌들을 중심으로 비구승 중심의 수행전통 회복에 대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었다. 1947년 청담(靑潭), 성철(性徹)을 비롯한 비구 수좌 20여 명이 중심이 된 봉암사 결사나 백양사의 만암(曼庵)을 중심으로 1947년에 결성된 고불총림(古佛叢林)을 주목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대처승을 호법중의 지위로 두면서 점진적 승단변화를 꾀한 것이었다.

이상과 같이 일제 강점기부터 비구승 수좌 중심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으며, 해방 후 교도제를 통해 대처승의 지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하지만 대처승 기득권 세력의 반발과 이념대립의 심화로 교도제를 실현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해방 후 수좌들의 결사를 통해 수행풍토를 조성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흐름은 6·25전쟁으로 잠시 중단되었지만 수좌들의 결사정신과 경험은 곧 불교정화운동의 폭발적 에너지로 표면화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편, 이승만 정권의 농지개혁 이후 사찰경제가 위축되고⁹⁾, 사관승들

7) 김광식, 「8·15해방과 불교계의 동향」, 『韓國 近代佛敎의 現實認識』, 민족사, 1998, pp.250-253.

8) 김광식, 「佛敎革新總聯盟의 結成과 理念」, 『韓國 近代佛敎의 現實認識』, 민족사, 1998, pp.282-283.

이 지가증권으로 외부 이권 사업에 눈을 돌리는 동안 수좌들의 수행환경이 더욱더 위협받게 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활할 수 있는 수행공간을 필요로 하는 수좌들의 요구와 결의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상과 같이 불교정화운동의 배경에 대해서는 개항 이후 한국불교가 지향했던 근대적 변화와 식민지 불교의 모순 속에서 축적된 승단의 현실과, 비구승들의 전통불교 복원을 위한 지속적이며 주체적 노력이 빚어낸 역사적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III. 불교정화운동의 전개과정

백양사 고불총림을 이끌었던 만암은 교정(敎正)에 추대되어 교단의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다. 1952~53년 사이에 통도사와 불국사에서 회의를 열어 대처승 처리문제와 수좌들의 전용사찰 문제를 논의했다. 고불총림에서 시도하였던 정법중과 호법중을 도입하여 승단과 사찰운영은 비구가 담당하고 대처승은 호법승으로 당대만 인정할 것과 동화사, 직지사 등 18개 사찰을 청정수행도량으로 양도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의는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비구 수좌들은 1953년 가을에 선학원에서 대책회의를 열었으나, 뚜렷한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전국에 흩어져 동안거를 맞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4년 5월 20일 대처승은 사찰 밖으로 나가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가 발표되었다.

9) 이승만정권의 사찰 농지개혁의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김순미, 「농지개혁과 사찰농지 변동」, 『불교정화운동의 재조명』,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2007.

< 표 1 > 이승만대통령의 불교정화 관련 담화(1954~1955)

회차	시기	담화 주요내용	대처승 인식	담화직후 비구승 동향
제1차	1954. 5.20	가정을 가진 중들을 나가서 살 것이며 비구승만이 농지개혁 후 다시 반환되는 토지를 소유하게 하여 불교유산을 유지하도록 함.	우리나라 불도에 위반되게 행한 자는 이후부터 친일자로 인정.	1954.9.28.-29. 전국비구승대회 개최
제2차	1954. 11.4	비구승니가 전국적 조직을 완성하여 각처 사찰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함.	모든 승니들은 애국정신으로 일본정신이나 습관을 완전히 내버려야 함.	1954.11.5. 비구승 태고사 점거
제3차	1954. 11.19	불교계의 정화를 위해 불교도는 정부방침에 순응해야 함. 공권력에 의한 집행을 예고함.	대처승=일본식 중	1954.12.10-13. 전국비구승니대회
제4차	1954. 12.16	평화로운 정화와 사찰주지를 공천이나 투표로 정하라 함. 주지직은 문교부의 인허장 받게 될 것임.	대처승들은 전과를 회개하고 퇴속하라.	1955.1.16. 비구승 태고사 점거
제5차	1955. 6.16	비구승, 대처승이라는 시비분쟁을 버리고 국가대계를 생각해야 함. 해결책은 당국과 의논해야 함.	대처승 친일반공분자를 선동하여 활동할 수도 있음.	1955.7.13. 문교부 주최 사찰정화대책위원회 개최
제6차	1955. 8.4	불교계 분쟁에 대해 친일하던 중은 물러나야 할 것임.	대처승은 일본 황제를 숭상하는 사상을 버리고 일본의 간섭이 없도록 할 것.	1955.8.5. 전국승려대회에서 전국 사찰주지 임명 결의
제7차	1955. 12.8	대처승이 사찰과 소속재산을 내놓고 물러감은 변할 수 없음. 승려들은 재산을 보호하여 사찰을 보수, 개량해야 함.	친일분자와 애국민 구별위해 비구승과 대처승 구별.	비구승의 사찰인수 마무리 단계

이 담화로부터 이듬해까지 이어진 이승만 대통령의 연속된 담화는 각 단계별로 비구승이 주도한 정화운동의 전환점과 기폭제가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여기면서 불교교단을 뒤흔드는 담화를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사찰을 한

국전통 관광의 근거지로 삼으려고 사찰문화재 보호 및 유지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사찰문화재와 전통문화 보존의 주체로서 비구승을 지지했다는 것이다. 사찰문화재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농지개혁 후 사찰농지를 반환해주는 결정도 가능했다는 것이다.¹⁰⁾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대처승이 사찰에서 나가야 되는 근거로 제시한 것은 대처승은 곧 친일자라는 규정이었다. 담화를 발표할 당시 이승만 정권은 친일파 인사를 대거 정권에 중용하면서도, 반일심리를 반공주의로 연결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였다.¹¹⁾ 표면적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반일’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한일 간에 독도문제, 재산권 청구 등 을 둘러싼 첨예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반일을 구호로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는데 힘쓰고 있었다.¹²⁾ 이승만 대통령이 불교교단에서 대처승을 친일자로 규정 하면서 교단에서 일소하려고 했던 것은, 이승만 정권의 유지를 위한 반일주의 구호가 그대로 불교교단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당시의 사회 분위기에서 대처승은 친일자로 동일시되면서 설 자리를 잃고 말았다.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에 힘입은 비구승들은 정화의지를 공식화하였다. 8월 24일, 25일 선학원에서 전국비구승대표자대회를 열어 새로운 종헌제정을 결의했고 1954년 9월 28일, 29일 열린 전국비구승대회에서는 새로운 종헌을 제정하였음을 공포하였다. 이를 통해 대처승을 승적에서 제외하고 교권을 비구승에게 환원할 것을 결의하였다.¹³⁾ 이에 대해 대처측은 종권을 이양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고, 종정 만암은 비구측이 종조를 태

10) 1952년 12월 이승만은 사찰에서 자작할 수 있는 정도의 농초를 반환하는 식으로 사찰 보호를 기하라는 담화를 했고, 1953년 5월 2일 국무회의에서 농지개혁법을 개정하여 사찰 부근의 토지를 사찰에 환원하도록 했다.(김진흠, 앞의 논문, p.309.; 김광식, 『불교와 국가』, 국학자료원, 2013, p.465.)

11) 서중석, 「이승만대통령의 반일운동과 한국민족주의」, 『인문과학』 30집,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0, pp.304-317.

12) 김진흠, 앞의 논문, pp.308-333.

13) 김광식, 「전국비구승대표자대회의 시말」, 『근현대불교의 재조명』, 민족사, 2000.

고보우(太古普愚)에서 보조지눌(普照知訥)로 바꾼 것을 ‘환부역조(換父易祖)’라 비난하며 대처측을 지지하였다. 비구측은 새로운 종정으로 동산(東山)을 추대하게 되었다.

1954년 11월 4일 제2차, 19일 제3차 대통령 담화가 발표되었다. 이 발표는 비구승들의 적극적인 쉼기를 촉구하는 역할을 하였다. 공권력의 개입을 예고한 담화로 인해 1954년 겨울, 비구·대처 양측의 갈등은 심화되고 물리적 충돌이 이어졌다. 태고사에 진입하여 ‘조계사’, ‘태고사’라는 간판을 떼고 붙이는 난투극까지 벌어졌다. 조계사(태고사)를 점거하여 차지한 측이 교단을 대표할 수 있다는 의식의 발로였다.

이러한 물리적 충돌 후 비구측은 전국비구승대회 개최, 경무대 시위, 일진일퇴의 태고사 점거를 이어갔고 정부는 중재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비구측은 이를 대처측을 대변하는 대책으로 여기고 반발하였다.¹⁴⁾ 비구·대처의 첨예한 갈등 속에 해를 넘긴 1955년 1월 말, 정부는 사찰정화수습대책위원회 구성이라는 구체적 중재안을 내놓았다. 이 위원회는 비구, 대처 각 5인씩으로 구성되었고 승려자격 8대 원칙(독신, 削髮染衣, 수도, 20세 이상, 不酒草肉, 不犯四婆羅夷, 非不具者, 3인 이상의 단체 승단생활을 해온 자)을 결정하였다. 6월 10일에는 대처측이 단식 농성 중인 비구측 승려를 습격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문제는 6월 16일 국회에서 논의되고 제5차 대통령 담화가 발표되었다. 이 5차 담화의 내용은 비구·대처가 분쟁을 정지하고 당국과 해결책을 논의하라는 것이었다. 이 담화에서는 대처승을 친공·친일 분자의 ‘선동자’라고 지칭하는 표현도 등장했다.

7월에는 문교부 주재 하에 비구, 대처 각 5인을 대표로 하는 사찰정화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런데 이때 개최된 몇 차례 사찰정화대책위원회에서 비구측은 승려자격 8대 원칙의 준수와 대처측 총무원의 기득권

14) 김광식, 「불교 ‘淨化’의 성찰과 재인식」, 『근현대불교의 재조명』, 민족사, 2000 참조.

을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했다. 1955년 8월 12일, 13일 비구측은 전국승려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서는 기존 총무원의 및 산하기구의 해산과 종회의원선출, 새로운 종헌 제정, 신 집행부의 선출, 전국 주요사찰의 주지 선출이 있었다. 이 대회는 절차상으로 비구중심의 종단제도가 일단락되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1955년 8월 전국승려대회 이후 정화운동은 전국의 사찰로 확대되었다. 각 사찰에서 비구, 대처간의 충돌이 이어졌고 사찰 소유권을 둘러싼 법정 소송도 이어졌다. 지방 본사부터 비구승들이 대처승을 내쫓고 접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경찰과 외부 지원세력이 동원되어 사찰 접수에 나선 것이다. 대처승에게서 사찰을 인계 받는 과정에서 대처측의 사무 인계거부, 저항, 시간적 지연 사태가 벌어졌다. 한편, 사찰정화대책위원회에서 정한 승려자격 8대 원칙에 의해 더 이상 승려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었던 대처측 일부는 자진 환속하여 절을 떠났고 정화의 방침에 순응한 대처승들은 가정생활을 정리하고 승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1960년 4.19혁명과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비구·대처 대립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4.19혁명으로 비구·대처 분규 상황은 재현될 기미를 보였고 곧이어 들어선 군사정부는 비구·대처 갈등을 분규로 규정하고 사회 안정 차원에서 처리하려고 했다. 군사정부는 불교재건위원회 구성을 제시하여 1962년 1월 비구·대처 대표 각 5인으로 구성된 불교재건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어 설립된 불교재건비상종회에서는 몇 차례의 줄다리기 끝에 승려자격에 대한 종헌을 수정하고 비구·대처측이 대등한 비율로 참여한 종단 간부진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1962년 4월 11일 역사적인 통합종단이 출범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종회의원 구성을 놓고 갈등은 지속되었다. 1965년 3월 화동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대처 측 승려를 포섭하였지만 결국 대처측은 화동과를 배제한 채 1970년 태고종을 창종하였다. 이러한 화동과정에서 비구·대처 양측의 교섭과 화합 여부

를 둘러싼 다양한 입장차가 존재했다. 그러나 1962년 통합종단의 출범으로 오늘날 조계종단이 성립될 수 있었고, 195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한 교단내 비구승과 대처승의 대립은 1970년 태고종의 창종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다.

불교정화운동으로 비구승 중심의 승단 복원이라는 정화이념을 실현할 수 있었고 사부대중의 장기간 희생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종단을 건설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불교정화운동의 과정과 진행의 각 단계에서는 국가권력의 개입이 큰 영향을 미쳤다. 승단은 장기간 비상체제 속에 분규상황에 휩쓸리고 극단적 대립과 충돌이라는 비극을 낳았다. 이러한 정화운동 과정상에 나타난 여러 문제들은 이후 종단에 상흔으로 뿌리 깊게 남게 되었다.

IV. 불교정화운동의 현재적 의미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청정 비구 승단은 한국불교의 주류이고 정통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 교단에 대처승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승단의 주류를 장악했다. 한국불교 교단 내 대처승단의 존재와 그 확산은 불교의 근대성 추구와 식민지의 모순이 함께 낳은 역사적 산물이었다.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불교정화운동의 과정은 교단 권력구조에 있어서 급진적 혁명의 양상을 띠었고 8년간의 비구·대처 대립은 치열한 분규의 모습으로 비춰졌다. 만약, 해방 후 발의된 교도제 또는 만암이 주창한 호법중 제도가 실현되었다면 혼란과 희생을 최소화한 점진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누적된 비구·대처승단의 긴장은 이승만 정권의 강력한 개입에 따라 일시에 폭발하는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한 두 세력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제도를 개선할 충분한 시간이 주

어지지 않았고, 실질적 화합을 이끌 수 있는 교단내 조정기구나 갈등 완충 장치도 준비되지 않았다. 오히려 갈등의 조정이나 통합은 정권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교단은 비구승단의 주도권 복원과 정체성 회복이라는 결실을 얻은 반면, 상실된 역사적 자산과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불교정화운동은 명암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적 관점에서 불교정화운동은 어떻게 규정될 수 있으며 그것이 한국불교사와 현 불교계에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몇 가지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첫째, 불교정화운동은 대처승이 주도한 현실에 도전하여 정체성 회복을 지향한 불교운동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불교정화운동을 주도한 주체세력들은 비구승 전통의 승단이 한국불교의 전통이라 확신했고 그 전통을 회복해야 한다는 비타협적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한 의지를 불교운동으로 확장시켜 승단을 재조직하고 단계별로 정치·사회 조직과 여론을 동원했다. 그 운동의 과정에서 수많은 인력과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쏟아 부어야만 했다. 승가 본연의 청정지계를 원칙으로 하는 비구승이 불교의 주류의 위치를 회복한 것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었다. 사회여론은 근본불교 정신과 한국불교 전통을 되찾는 것이라는 대의명분 때문에 대체로 비구승단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당시 사회에 지배적인 반일정서에서 대처승을 지지하기 쉽지 않았다.

불교정화운동 당시 대처승 중 많은 이들이 다른 직업을 갖고 생활하고 있었다. 또한 제도적으로 수행승과 교화승의 명확한 구분이 없었다. 한국 불교의 주류 승단을 대처승이 지속적으로 장악하였다면 승려의 정체성과 승단 유지는 한계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높다.

그때의 교단 형편은 어땠었는가. 같은 승적을 가진 승려였지만 종단의 사원은 전부 대처승이 가지고 있었고 비구승은 거리에 나가 앉은 실정이었다. 교육을 많이 받았거나 자립경제가 된 사람은 寺內에 없었고 늙은 스님과 갈 데 올 데 없는 사람이 스님으로 절에 머무니 이제 승단이 전통적 시각

으로 보면 없어졌고 큰 절에도 도량에 잡초가 무성했었다. 그런데도 다소 이권이 있는 까닭에 사찰은 비구승에는 줄 수 없는 생각에서 황폐한 절을 장악해 있었고 옳게 산다는 비구승은 자고 먹을 데가 없는 형편에 있었으니 정화운동은 인과응보적 관계상으로 볼 때 필연적인 시대적 현상이었다.¹⁵⁾

위와 같은 회고에서는 정화직전 사찰의 모습과 비구승이 처한 현실이 잘 드러난다. 교육 수준이 높고 경제력을 갖춘 대처승들은 사찰에서 벗어나 있었고, 관리가 안 된 황폐한 사찰에서 비구승들은 극심한 곤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교정화운동은 비구승의 생존을 가능하게 했고 교단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었다.

당시 정화운동을 주도했던 이들이 구상한 승단의 모습은 비구가 중심이 된 체계였다.¹⁶⁾ 하지만 한국불교의 정체성과 조화된 현대적 승단의 존재양태에 대한 연구와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화운동 당시 종조론(宗祖論)을 둘러싼 논란을 제외하고는 사상과 교리에 대한 논쟁은 거의 없었던 것이다.¹⁷⁾ 이 점은 불교정화운동이 정체성 회복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사상과 교리상의 치열한 논쟁보다는 전통주의의 고수와 종단 권력 획득에 집중하였다는 한계를 말해준다.

15) 장이두, 「¹⁸ 금련사토굴; 나의 수행기, 물처럼 구름처럼」, <해동불교>, 1990.8.6.-1992.7.13. 연재; 김광식, 「정금오의 불교정화운동」, 『불교학보』 57집, 2011, pp.152에서 재인용.

16) 당시 승려의 정의를 비구승으로 상정하는 견해에는 거의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僧의正義：三人 이상 團體生活을 하면서 二百五十戒(比丘) 五百戒(比丘尼)를 받고 修行하는 者를 말함이다. 비구·비구니의 總稱을 僧이라 하고 別稱을 비구, 비구니라 한다. 그러므로 금번 佛教淨化는 信仰의 자유 원칙에는 조금도 위배되지 않은 동시 出家하는 거나 在家하는 것은 다 自由이다. 출가한 비구·비구니로서 配偶者가 생기면 在家弟子로 돌아가고 즉 優婆塞 優婆夷가 되고 割愛捨親하고 출가하여 二百五十戒 五百戒를 受持하고 修行하면 비구·비구니를 즉 僧이라고 한다.” (손경산, 「한국불교 정화의 종착점」, <대한불교> 19호, 1961.8.

17) 문찬주 역시 정화기간 동안 비구, 대처 양측이 본격적인 교리적 논쟁은 거의 하지 않고 조직 헤게모니 쟁탈전에 매진했다고 보았다. (문찬주, 「정화불교운동: 통합주의와 종파주의의 교차로」, 『대각사상』 제14집, 2010, p.285.)

정화 이후 교단의 현실은 무자격승의 대거 유입과 교육의 부재 등으로 혼란 그 자체였다. 또한, 정화 이후의 불교에 대한 실망이 이어졌고 개혁된 교단상은 정화의 주체들 사이에서도 서로 달랐다.¹⁸⁾ 또한, 1961년 군사정권이 사회 안정책 차원에서 급작스럽게 추진한 불교재건위원회나 화동 움직임은, 갈등을 남겨둔 채 표면적인 봉합으로 흐른 경향이 있었다.¹⁹⁾ 불교정화운동의 역사적 교훈은 불교정화의 출발과 본질에서 현실적 타협의 과정까지 치밀하게 살펴보고 찾아내야 할 것이다. 불교정화운동 과정에서 등장했던 종단 내부의 다양한 이견과 입장차도 주목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교단의 정체성 문제는 21세기 한국불교와 종단에 대해서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이다. 현대 한국불교에서 비구승 중심의 수행전통이란 무엇인가. 전 세계의 다종다양한 수행 방법이 소개되고 그 수행법들의 실험 무대가 되고있는 현대 한국불교의 현장, 그리고 승려들의 다채로운 사회 참여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불교의 정통성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불교정화운동에서 제기했던 한국불교의 수행전통과 정체성의 문제는 오늘날에도 새로운 물음이 될 수 있다.

둘째, 많은 이들이 지적했던 바대로 불교정화운동의 과정과 방법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불교정화운동에서 주체세력이 보인 결과주의적, 목적론적 행태는 비불교적 문제를 야기했다. 당시 비구승들은 대처승과의 대립에서 수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무자격 승려를 받아들이고 대처승으로부터 사찰을 빼앗아 접수하는데 활용하였다.

한국불교가 정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35년밖에 안됐어. 처음 정

18) 대처승의 처리를 둘러싼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이나 정화 이후 종단개혁 방향에 대한 청담과 경산의 대립 등을 말한다.

19) 통합종단의 성립과 이후 화동추진 등의 명목으로 대처승을 종단에 끌어들이려 한 이유는 종단의 안정화, 등록사찰 수의 증대, 종단 3대 사업의 지속적 추진 등 종단 운영의 현실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김광식, 「경산의 불교정화운동」, 『불교학보』 83, 2018 참조)

화할 때에 대처승이 2500명이고 비구승이 600명밖에 없었어. 그 600명이 대처승을 다 쫓아 냈는데 비구승수가 모자라잖아. 자꾸자꾸 붙어 몇 천 명이 됐어. 그래서 급조승이란게 생겨났다고. 스님 수가 붙어나니까 그중에는 사기꾼·협잡꾼·깡패 별 것이 다 머리 깎고 중이 됐다구. 그런 사람들을 옮겨 가르쳐야 했는데 능력이 없었어. 우리 노장님들이 안목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힘이 모자랐던 거여. 갑자기 사람 수가 늘어나니까 균형을 잃어 버렸어요.²⁰⁾

분쟁에서 승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교단의 정화라는 본질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정화운동이 마무리된 후, 정화운동에 전념한 고승들이 도제양성을 최대의 과제로 삼은 이유도 그것이었다.

한편, 8여 년 동안의 물리적 충돌과 법적 송사는 한국불교를 안정되지 못한 교단으로, 분규의 종교로 사회에 각인시켰다. 짧지 않은 세월동안 종단의 내적 성장에 쏟아야 할 에너지가 갈등과 분규로 허비되고, 종단 분규를 공권력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사회문제로 인식되도록 만들었다.

또한 불교정화운동에 참여한 이들은 승패의 결과에만 몰두하면서 국가 권력에서의 의존이 만연하게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에 의해 정화운동이 폭발한 측면은 국가권력에 의지하여 사태를 해결한다는 선례를 남겼고, 종단 집행부가 정권과 유착하여 선거에 개입하는 일까지 벌어졌다.²¹⁾ 이후 불교교단은 군사정권 시기에도 친정부적 태도를 보이다 사회적 지탄을 받기도 했다. 승단의 문제를 정권의 힘과 법적 판단에 의지하다보니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조계종단의 고질적 병폐가 되었다. 결국 이러한 악순환은 1994년 개혁종단이 출범하고 나서야 그 고리를 끊

20) 승산행원선사문도회, 『世界一花: 승산행원선사전서2: 큰스님과의 대화』, 불교춘추사, 2001, p.210.

21) 비구승측은 1956년, 1960년 대통령선거에서 이승만 지지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였으며 이러한 측면은 대처승도 마찬가지였다. 1958년 5월 민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처승측도 불교도는 자유당 후보를 지지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법보신문> 2014.7.23.; 김진흠, 위의 논문, pp.306-307.)

을 수 있었다. 1994년 개혁종단 출범은 불교정화 이후 비민주적 정권에 무비판적으로 의존해온 조계종단의 병폐가 깊어터졌기 때문이었다.²²⁾ 결국 불교정화운동은 종단의 정권 유착이라는 비민주적, 비자주적 행태의 출발이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결과에만 집중하여 과정의 정당성을 문제 삼지 않은 관행은 종단 내 분규 상황에서 지속된 패턴이다. 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불교자주화와 교단 자정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불교정화운동은 부분적으로 근대불교 역사인식의 단절을 낳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승만 대통령 본인은 정작 친일파를 등용하면서, 표면적으로는 ‘반일·반공’을 정치적 구호로 정권을 유지하고자 했다. 그 연장선에서 불교 담화를 통해 대처승을 친일자로 등치시켰다. 당시 정권의 반일 구호나 반일 정서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았다. 비구승 역시 이러한 인식을 불교정화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불교정화운동은 대처승을 일제잔재로 등치시키고 전통회복이 곧 일제잔재 청산이라는 논리를 갖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시대적 산물로서 대처승들의 활동과 성과를 간과하고 근대불교사를 정화 이후 현대불교사와 단절된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비구·대처의 대립적 인식으로만 불교사를 바라본다면 근대 불교지성의 고뇌와 성과를 모두 도외시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대처승 제도 자체는 일제잔재로 볼 수 있지만 근대 한국불교의 교도로서 대처승들 모두를 일제의 잔재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대처승 중 많은 이들이 한국사회의 지성으로 활약했으며 불교의 사회적 역할과 불교의 근대성을 고민하며 시대를 선도하는 불교 개혁안을 내놓기도 했다. 또한 근대학문으로서 불교학을 성립시키고, 근대적 포교와 출판 활동을 했다. 더욱이 불교계 항일운동에 앞장 선 인물

22) 1994년 종단개혁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 개혁불사의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94년 개혁불사 2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종단개혁 20주년기념 94년 종단 개혁백서』, 대한불교조계종 출판사, 2016.)

들이나 불교청년운동에 헌신했던 많은 이들이 대처승이었다.²³⁾ 대처승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제 잔재로 낙인찍고 도외시하여 종단의 역사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근대불교가 이룩한 자산과 역사를 잃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불교정화운동을 포함한 조계종의 역사인식이 문중 중심주의로 흐르는 것 역시 성찰할 문제이다. 문중의 ‘큰 어른’을 현창하는 것은 후손으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문중에 속한 인물의 행적으로 역사에 접근하다보니 세력 있는 문중에 속하지 못하거나 범손이 끊긴 인물에 대해서는 기념사업도 있을 수 없고 관심도 없는 상황이다.²⁴⁾ 이렇다 보니 근대불교를 온전히 복원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근대불교에서 드러난 사실과 의미들을 폭넓게 역사로서 수용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대 조계종단은 고승들과 대중들이 합심하여, 끊임없는 정진과 투철한 희생 속에 불교정화를 성사시켰다는 역사적 경험을 얻었다는 점이다. 불교정화운동을 주도한 여러 승려들은 순교를 결의하고 정화불사의 완성을 위해 8년여라는 긴 세월을 고분 분투했다. 또한 불교정화에 앞장섰던 고승들은 이후에도 종단의 큰 스승으로 종단과 문중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었다. 대중들은 조계사의 솔을 다 얹어놓고 단식기도를 하거나 엄동설한에 눈발위에서 정진을 하는 등 희생을 감내했다.²⁵⁾ 또한 전국비구승대회를 개최하여 공의를 모으고 실행하는 전통을 세웠다. 이렇게 사부대중이 합심하여 한국불교를 회생시키는 성과를 얻어냈다는 경험은 이후의 1994년 개혁종단 출범에 이르는 개혁운동에서 재생될 수 있

23) 강인철은 1920~30년대 반일세력은 청년 엘리트 대처승이었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비구승 가운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민족운동을 벌인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강인철, 「해방 후 불교와 국가:1946~1960 비구·대처 갈등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57호, 2000, p.88.)

24) 불교정화운동과 관련된 개인연구를 보더라도 청담, 동산, 금오, 경산, 월하, 서운, 만암, 벽안, 탄허 등 대부분 조계종 ‘큰스님’에 한정되어 있다.

25) 불교정화운동의 주체는 비구승 몇몇 승려에 국한되지 않았다. 순교단 조직, 혈서의 작성, 단식, 대법원 납입, 할복시도 등 다수의 대중들의 참여가 있었다.

었다.

한편, 이러한 역사적 경험 뿐 아니라 이념적으로도 불교정화는 미완의 과제, 불교개혁의 요구 때마다 되살려야 하는 정신으로 조계종단에 지속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화의 주역이었던 청담(靑潭)은 교단 내에서 불교정화이념이 상실되어가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정화의 재추진의 의미가 담긴 유신재건안을 주장했다가 거부당하자 1969년 8월 12일 충격적인 조계종 탈퇴선언을 하고 만다. 그러면서 불교정화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했다.

그 「淨化」란 먼저 교단을 정화하여 안으로 「修道僧團·正法佛教」를 확립하고 밖으로 새로운 敎化運動을 일으키어 「人間改造·道義再建·社會淨化」의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祖國再建의 터전을 마련하고 나아가서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²⁶⁾

청담은 도제교육을 통한 수도승단의 확립을 주장하면서 정화정신을 교단에서 사회로까지 확장시켜야 함을 말하였다. 이렇게 불교정화운동이후 새로운 정화의 필요성은 다시금 불거졌다.

이번 개혁을 제2정화 佛事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부대중이 함께 개혁 작업에 동참할 때 개혁이 실현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불교가 할 일은 참으로 많아요. 그동안 겪은 슬한 고난과 진통을 토대로 중흥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 종도들이 해야 할 일은 기왕에 출범한 개혁회의가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주자는 것이지요. 아무쪼록 意和同悅·利和同均의 정신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²⁷⁾

위의 지적은 불교정화운동이 일어난 지 40년이 지난, 1994년 종단개혁

26) 청담, 「소명서」, <대한불교>, 1969.8.17.

27) 黃圭鎬, 「인터뷰·佛敎 曹溪宗 宗正 月下 스님 -다투면 부족하고 사양하면 남는다」, 『月刊中央』, 1994년 6월호, p.506.

을 제2정화 불사로 삼아야 한다는 종정 월하(月下)의 주장이었다. 불교정화운동의 주역으로 활약했던 월하는 1994년의 불교개혁을 40년 전 정화운동의 연속선에서 파악하고 있었고 현대 불교개혁 운동의 뿌리를 불교정화운동에서 찾았다.

정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불교정화’는 불교개혁을 주창하는 측의 핵심구호로 자리 잡았다. 혼탁한 종단 정치의 모순이 심화될 때마다 불교정화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 되었다. 정화는 종단개혁의 논의가 있을 때마다 거론되는 구호이자 개혁운동의 이미지였다. 기존 질서에 대한 혁신을 추진할 기구 이름에도 ‘정화’가 삽입되었다. 불교정화는 당대 종단개혁의 당위성을 확인시켜주는 권위로서 작용했다.²⁸⁾ 그렇기 때문에 한 종단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2의 정화’가 필요하다는 표현은 반복적으로 등장할 수 있었다. 결국 불교정화는 조계종 승단이 지향해야 할 가치이자 청정한 수행자상의 복원을 가리키는 교단 자정운동의 과제로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불교정화운동은 66년 전 일어났지만 현재까지 한국불교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다. 불교정화운동은 근대 불교의 변화와 식민지 불교의 모순, 한국불교 전통과 승단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이 일시에 폭발한 사건이었다. 1954년 5월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 이후 교단의 외곽에서 생존해온 비구승들은 교단의 주도권을 찾기 위한 맹렬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8여 년간 비구승과 대처승간의 교단장악과 전국 사찰의 점유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1962년 통합종단이 출범하면서 정화운동이 마

28) 1980년 10·27법난 이후 종단개혁을 추진한 기구의 이름도 ‘정화중흥회’였다. 1998~1999년 종단분규에서 개혁종단에 대립하여 조직된 세력도 ‘정화개혁회의’라는 간판을 걸었다.

무리되고 결과적으로 비구승이 한국불교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하지만 불교정화운동이 종단의 주도권을 단 시일 내 뒤바꾸는 혁명적 전개양상을 보이면서 많은 후유증과 과제를 남겼다.

종단의 정권유착과 극단적 교단 내 분규양태는 불교자주화와 교단자정을 시대적 과제로 남겼다. 또한 근대불교 역사인식의 단절도 성찰해야 할 문제이다. 다른 한편으로, 불교정화운동은 사부대중이 합심하여 회생과 투쟁을 통해 성취시킨 역사적 경험으로 남아있다. 비구승단 회복과 전통의 복원이 불교정화운동의 결과라면, 사부대중의 합심과 정진 경험은 정화운동 과정에서 얻은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62년 이후 한국 현대불교사에서 불교정화는 종단이 위기와 혼란에 빠질 때마다 끊임없이 소환되는 종단 개혁의 구호로 등장했다. 불교정화를 명분으로 종단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세력들도 있었지만 종단이 혼탁해질 때마다 개혁을 주창하는 이들에게서 불교정화의 구호가 등장했다. 불교정화가 현재까지 흔들림 없는 불교개혁의 이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각 시기마다 종단 개혁의 내용은 달랐지만 불교의 근본정신으로 돌아가 승단을 개혁한다는 점에서 불교정화 이념은 조계종단이 실현시켜야 되는 과제이자 끊임없이 재생되는 불교혁신의 뿌리로서 역할을 했다.

현재의 불교교단이 본래의 정화이념을 얼마나 실현하고 있는지, 급진적 정화운동 과정에서 벌어진 부작용들과 문제들이 얼마나 해소되었는지, 이 시대에 맞는 불교정화와 승단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이제 곧 다가올 불교정화운동 70주년을 앞두고 성찰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불교정화 연구가 현대불교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 관점의 편향성, 의도성 등에 의해 학문적 심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지적받은 지도 수년이 지났다.²⁹⁾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불교정화에 대한 연구풍토가 그 동안 얼마나 변화하였고 연구 수준이 심화되었는지 의문이다. 불교정화운동 70주년을 앞두고 객관적이며 성찰적인 연

29) 김광식, 「불교정화운동 연구, 회고와 전망」, 『대각사상』 제21집, 2014, pp.257-258.

구의 출현이 요청된다. 그것이 불교정화운동의 위상과 가치를 현대불교사에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길이라 믿는다.

참고문헌

- 선우도량, 『교단정화운동과 조계종의 오늘』, 선우도량출판부, 2001.
- 선우도량, 『22인의 증언을 통해 본 근현대 불교사』, 선우도량출판부, 2002.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조계종사-근현대편』, 조계종출판사, 2001.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불교정화운동의 재조명』, 조계종출판사, 2008.
- 강인철, 「해방 후 불교와 국가:1946~1960 비구·대처 갈등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57호, 2000.
- 김광식, 「불교 ‘정화’의 성찰과 재인식」, 『근현대불교의 재조명』, 민족사, 2000.
- _____, 「정화운동의 전개과정과 성격」, 『새불교운동의 전개』, 도피안사, 2002.
- _____, 「한국 현대불교와 정화운동」, 『대각사상』 제7집, 2004.
- _____, 「불교정화운동 연구, 회고와 전망」, 『대각사상』 제21집, 2014.
- 김진흠, 「1950년대 이승만 대통령의 ‘불교 정화’ 유시와 불교계의 정치 개입」, 『사립』 제53호, 수선사학회, 2015.
- 박희승, 「불교정화운동 연구-불교정화운동을 보는 한 시각」, 『불교평론』 3호, 2000.
- 서중석, 「이승만대통령의 반일운동과 한국민족주의」, 『인문과학』 제30집,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0.
- 이재현,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와 불교정화 운동의 전개」, 『대각사상』 제22집, 2014.

Abstract

Current Recognition and Implications of the Buddhist Purification Movement

Lee, Kyung-soon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The Buddhist Purification Movement was the most important historical event in modern Korean Buddhist history. The Buddhist Purification Movement was an event in which the problems surrounding the changes in modern Buddhism and the legacy of colonial Buddhism. After President Syngman Rhee's statement in May 1954, bhikku who have survived outside, began fierce activities to seize the power of the Korean Buddhist order. Over the eight years, there have been numerous conflicts between Buddhist monks(bhikku) and married monks to occupy of Jogye order and temples across the country. With the launch of the integrated order 1962, the Buddhist Purification Movement was completed, which resulted in Buddhist monks taking the initiative in Korean Buddhism. However, the Buddhist Purification Movement showed a revolutionary tendency to reverse the leadership of the order in a short period of time, leaving many aftereffects and challenges.

The Buddhist Purification Movement is half a century away from now, but it has had a strong impact so far. As the aftereffects of Buddhist purification, there have been left Buddhist self-reliance and monastic order autonomy as tasks of the times. Also, the severance of the perception of the history of modern Buddhism is a matter of reflection. In addition, Buddhist purification has emerged as a slogan for end-to-end reform,

which is constantly recalled whenever the Jogye order falls into crisis and chaos. It tells us that Buddhist purification has so far served as an unwavering ideology of Buddhist reform. The Buddhist purification ideology has served as a task for the Jogye Order to realize and as the root of the ever-renewing Buddhist innovation.

Key words

Buddhist Purification Movement, Buddhist Reform, bhikku(bhikkhuni), Married monks, Buddhist Conflict, Jogye Order